

## 20세기 록뮤직스타 헤어스타일의 특징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1950년대에서 1970년대를 중심으로-

신혜정\* · 구자명

수원여자대학 패션코디네이션과 강사\*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예술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ymbolism of Rock Music Star's Hairstyles

Shin, Hae-Jung\* · Kuh, Ja-Myung

Lecturer,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Suwon women college\*

Lecturer,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2005. 1. 2.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ymbolism shown in Rock stars' hairstyles through rock music to have influenced youth culture. There were a D.A style and a mop top style which included the youth characteristic to seek a new desire and value as the hairstyles of Rock & Roll stars,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ock & Roll music to represent the feeling of teenagers in 1950's at that time unlike the previous music due to high beats mixed with Rhythm & Blues (R & B) and Country music, and use of electronic guitars. We can see the desire for challenge and freedom against the then present regime, shouting love and peace, and resistance in the Psychedelic Rock music stars' hairstyle, which are untrimmed and disheveled, that is, natural. We can find explosiveness in Mohican and Spike style of Punk Rock stars playing fierce and aggressive music, along with words including indignation and assertion against the society's regime. The Artistic characteristic is implied in the following hairstyles: Glam Rock stars' hairstyle, a man's long-haired but a little long crew-cut style to reduce the bulky feeling and to give a bisexual, visible shock with hair dyed in orange to emphasize magnificence, and Punk Rock stars' hairstyle showing beauty in their own way with expression of anti-beauty to intentionally look ugly. Like this, the 20th Century's Rock music and youth culture are closely associated each other, and showed a new style,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street fashion, which became a momentum to much influence high fashion as a look of the 20th century modern fashion.

**Key words :** Rock music star(록 뮤직 스타), Hairstyles(헤어스타일), Characteristics(특징), Symbolism(상징성)

#### I. 서 론

주류문화와는 반대되는 하위문화현상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산업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층에도 경제권이 부여되자 이들은 사회변화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20세기 이후 대량 생산은 소비 성향을 촉진시켰고 교육층대는 청소년에게 산업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층은 상류층이나 엘리트층만이 점유하는 스타일을 모방, 조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 특유의 청소년 문화를 탄생시켰다<sup>1)</sup>.

하위문화를 언급할 때 흔히 1950년대 청년문화의

\*Corresponding author: Shin, Hae-Jung

E-mail: green0503@hansung.ac.kr

발흥에서 하위문화의 출발을 찾는다. 하위문화의 촉매는 대중예술이며 그 중에서도 음악 특히 록(rock)이다. 록은 청년 문화의 음악으로 본질적으로 폭발적이고 시끄러우며 기성의 질서와 권력을 거부하는 젊음의 폭발적 저항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록의 창조적 에너지는 현실의 제약에서 탈주하려는 주변적 청년들로부터 분출되었다. 그래서 하위문화의 변천은 상당 부분 록의 사회사와 겹치기 때문에 하위문화의 변천은 록 뮤직의 변천사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록 스타들은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패션을 형성하여 록 뮤직과 패션은 그 흐름을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해서 거리 젊은이의 스트리트 패션은 대중 음악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음악 장르별 이름에 따라 로큰롤 록(rock'n roll look)<sup>2)</sup>, 사이키델릭 록(psychedelic look)<sup>3)</sup>, 글램 록(glam look), 펑크 록(punk look)<sup>4)</sup> 등의 새로운 패션 룩이 창조되어 젊은 문화의 패션에 영향을 준 록 뮤직은 스트리트 패션의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큰롤과 함께 시작된 하위문화는 그 후 여러 장르의 록 뮤직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패션과 헤어스타일도 록 뮤직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고 이것은 20세기 말의 스타일에도 그 영향력을 끼쳤으며 수많은 영화나 패션, 미용산업의 시각적인 면에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되었다.

따라서 하위 문화의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록 뮤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에 많은 영향을 준 로큰롤, 사이키델릭 록, 글램 록, 펑크 록의 출현시기인 1950년대에서 1970년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고 록 뮤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로큰롤 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 비틀즈(The Beatles), 사이키델릭 록의 짐 모리슨(Jim Morrison),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재니스 조플린(Janis Joplin), 글램 록의 데이빗 보위(David Bowie) 그리고 펑크 록의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를 중심으로 그들의 앨범 재킷이나 잡지, 서적, 인터넷 사이트 사진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록 뮤직 스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징과 내적 의미의 상징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록 뮤직과 록 뮤직 스타들의 패션 즉 헤어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좀더 창조적인 헤어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의 역할과 유행 경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II. 20세기 록 뮤직

### 1. 록 뮤직의 발생 배경

#### 1) 사회 문화적 배경

1950년대 전 세계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이념 대립, 이른바 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권인 미국은 풍요와 번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면에 있어 선두권을 쥐게 되었다. 1950년대 로큰롤에 반영된 흑인 문화는 인종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보다는 흑인 문화자체의 형식만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흑인 문화와 의식이 대중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백인에게 흡수되어 호응을 얻음으로써, 이어오는 1960년대 사회의 흐름과 민권운동에 대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로큰롤에 있어서의 흑인 문화적인 요소는 단순히 음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그것과 어우러져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젊은이 문화의 진원지로서 대중 음악이 성장함에 따라 백인 젊은이들은 흑인 문화의 흡용함을 인식하게 되었다<sup>6)</sup>. 그러므로 흑인의 문화는 그들만의 독특함을 인정받게 되면서 백인들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반역과 적극적인 저항의 표시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백인 중산층은 상당한 수준의 재화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인 십대들이 등장하여 기존 세대와 비슷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며 경제적인 힘을 가진 십대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모이기 시작했다. 1950년대 초반에 영국과 미국의 청년문화에 있어 노동 계급의 젊은이들은 광적으로 스타일에 집착했으며 독자적인 하위문화를 지니고 있었고 길거리의 소년과 학교에 소속된 소년들 등 각기 다른 젊은이 집단들은 계급과 성과 연령에 대해서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던 십대들은 특히 외모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1960년대가 되면서 세계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60년대는 유대감이 없는 사회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반대함으로써 기존의 가치를 문제삼았다. 또한 이 시기는 시민 불복종, 자유연애, 해프닝, 미니스커트, 장발, 마약과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생활방식이 전면에 부각되고 수용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전쟁과 인권옹호, 평등을 주장하는 급격한 사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히피(hippie)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물질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기존체계에 대한 저항적인 집단으로 기존 사회에서 이탈하여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구하며 사랑과 평화의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세대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에는 60년대의 풍요로운 물질문화에서 석유 파동과 인플레이 현상의 경제적 불경기로 인한 침체의 시기로 사회적인 불안심리가 고조에 달해 있었다. 70년대 후반 영국의 경제 불황과 실업의 만연 속에서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의 구체적인 표현현상으로 펑크문화가 생겨났다. 그 특징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파괴적인 행위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패션이나 예술에의 충격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의 모더니즘을 창출하였으며 원시문화의 아프리카를 동경한 보헤미안이었다. 스스로 반성취주의(anti-achievement statement)를 택하였고 히피의 경건한 지식주의적 도취에서 벗어나 반지식주의로 가기도 하였다<sup>7)</sup>. 또한 정부나 기존 체제에 저항하려는 펑크족과 난폭한 행동 또는 음악을 통하여 그들의 저항을 표현하려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펑크족도 있었다.

이렇듯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청년문화 속에서 탄생하게 된 록 뮤직은 각각의 시대별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기성세대의 질서와 가치를 거부하는 젊음이었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하는 움직임이 되었다.

## 2) 록 뮤직의 특성

록 뮤직의 이전을 로큰롤이라고 하나 대부분 록의 시작으로 로큰롤을 보며 컨트리 뮤직과 부기우기(boogie-woogie: 템포가 빠른 재즈)에서 유래한 흑인 음악의 신선하고 윗트있는 사운드의 혼합물로 1950년대 중반 백인 음악가들에 의해 그 매력이 발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50년대를 시작으로 청년문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록 뮤직은 젊음의 폭발적 저항의 미학이라고 정의한다<sup>8)</sup>. 이는 록 뮤직의 역사가 로큰롤을 시작으로 포크 록, 사이키델릭 록, 하드 록, 글램 록, 펑크 록, 그런지 록, 얼터너티브 록까지 젊은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신이 내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록 뮤직의 특성에서 록의 청춘성, 폭발성, 저항성, 예술성이라는 주요한 개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록의 청춘성은 새로운 시대를 재창조하고 사회의식을 이입해 시대를 적시하였던 록을 통해 젊은

이들은 그들의 청춘을 발산하며 젊음의 자유를 표현해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둘째, 폭발성은 록이라는 장르가 젊은 혈기를 바탕으로 한 음악이므로 폭발적이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록의 폭발성은 70년대 후반 영국을 강타한 펑크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셋째, 록의 가치와 각별함은 저항성에서 나타나는 데 이는 폭발성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 50년대 로큰롤의 탄생부터가 스탠더드 팝에 길들여 온 지배적인 음에 대한 반란이라고 본다. 그리고 펑크 밴드 또한 50년대 로큰롤의 충격을 재현하여 70년대 당시 기존사회에 충격을 가하여 단순한 반란이 아님을 경고하였다.

넷째, 록은 청년문화를 바탕으로 저항성, 폭력성이라는 공격적인 원시적 특성에서도 예술성을 이룩했다. 비틀즈 이후 록 뮤직은 미적 형식을 갖추면서 사회성 외에 예술성까지 획득하게 되었지만 펑크밴드들은 이러한 예술성 표현에 있어서 미학적 경향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의식적 창작물이라는 것으로 저항성과 악수하고 있는 그들만의 미학적 산물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글램록은 음악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션으로 그 당시 젊은이들이 더욱 열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록 뮤직은 집단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청년의 저항 의식과 개인적이고 목적 의식적인 예술적 표현 모두를 포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 20세기 록 뮤직의 장르와 음악적 특성

### 1) 로큰롤(Rock & Roll)

50년대의 로큰롤은 흑인의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R & B), 컨트리, 그리고 전통적인 팝과 재즈, 가스펠, 포크 등 다른 현존하는 다양한 음악 양식들의 혼합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양식들이 모여서 단순하고, 댄서블한 블루스 기반의 음악형식을 탄생시킨 것이다. 컨트리를 부드러운 음악에 익숙하던 기성세대는 로큰롤 음악을 악마의 음악으로 칭하여 앨범을 불사르기까지 하였다. 전쟁의 고통을 모르고 자란 새로운 세대인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전의 세대와 또 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로큰롤은 바로 그런 그들의 성격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들만의 음악적 언어였으며 자연스럽게 이들은 기존의 멜로디 위주의 스탠더드 팝 대신 강한 비트의 음악에 몰두했다.

로큰롤 자체가 흑인문화의 색이 진했지만 비트족

과 십대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족시켜줄 만한 문화가 로큰롤이었기에 음반시장에서는 흑인의 목소리와 감성을 가진 백인을 찾기를 원했으며 그러한 이미지에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다. 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백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에 의해 로큰롤은 대중화되어 당시 주변문화와 더불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또한 유명한 흑인 로큰롤 뮤지션으로 리틀 리처드를 꼽을 수 있다. 광기에 사로잡힌 무대 매너와 사치스럽고 현란한 의상과 함께 후에 미국의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1960년대 초반 영국 리버풀 국적의 존 레논(기타), 폴 메카트니(베이스), 조지 해리슨(리드기타), 링고 스타(드럼)로 이루어진 4인조 그룹인 비틀즈의 등장으로 로큰롤은 미국의 대중음악에서 전 세계적인 음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 어둡고 암울했던 미국 청소년들에게 대서양을 건너온 비틀즈 그룹의 미국으로의 상륙은 미국 젊은이들의 정서와 의식에 활기를 주었고 음악적 측면 이상의 사회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인 불합리성, 베트남전 문제 등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비틀즈 음악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로큰롤은 저항의 의미였으며, 모든 종류의 금지, 특히 섹스와 관련된 금지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당시 젊은 세대들의 욕망을 보여주었다.

## 2) 사이키델릭 록(Psychedelic Rock)

사이키델릭의 음악적 특성은 음악을 통해 L.S.D의 효과와 같은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예전에는 록 뮤직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악기의 도입과 맨 정신으로 듣기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단순하고 무의미한 즉흥 연주가 10여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음악, 그리고 신비스러운 인도 음악의 영향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시타르라는 인도 전통 악기가 종종 쓰이는 데서도 잘 나타나며 전체적인 사운드는 현기증을 일으키듯 이어진다. 이러한 사운드는 뮤지션들이 스스로 악물을 복용하고 환각상태에서 작곡하고 연주함으로써 아주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sup>9)</sup>.

사이키델릭 록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지미 헨드릭스는 화성으로부터 떨어진 혁신적 기타리스트라는 평을 받으며 태풍과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켜 그는 자신만의 사운드를 창조하고자하는 수많은 젊은 기타리스트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히피문화를 대표하는 록 뮤지션의 하나인 짐 모리슨은 광기와 자기 파괴적인 성향의 도발적인 다중적 면모를 드러낸 록 스타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수많은 록의 명곡들을 발표한 도어즈의 카리스마적인 보컬리스트였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도어즈는 음악 실력 면에서 뛰어나았으며 그의 돋보이는 카리스마와 함께 번뜩이는 록밴드 스타로 떠올랐지만 결국 약물과용으로 죽어서 신화로 남은 히피세대의 아이콘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이키델릭 록 스타인 재니스 조플린은 1960년대가 배출해낸 위대한 백인 여성 블루스 록 스타로 쉬고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지만 독특한 호소력을 지닌 음악을 전달해 사랑을 받았다.

## 3) 글램 록(Glam Rock)

글램 록은 7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대표적인 특징은 기발한 의상과 기본적으로 단순한 로큰롤 리듬을 바탕으로 한 음악이며 팝적이면서 펑크적인 색깔이 가미되어 있는 록 뮤직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글램 록 스타들 중에서 데이빗 보위는 양성적인 옷차림과 현란한 화장으로 글램 음악과 스타일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1969년 스페이스 오더티(Space Oddity)로 히트를 쳤지만, 1972년 지기 스타더스트(Ziggy Stardust)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밴드 스파이더 프롬 마스(The Spiders From Mars)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여 글램 록의 절정을 이루었다.

## 4) 펑크 록(Punk Rock)

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에서 태동한 특이한 개성을 지닌 록 뮤직이 펑크 록이다. 70년대 중반 영국 런던의 실업과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탄생한 영국의 펑크 록은 그룹 섹스 피스톨즈의 무정부주의적인 가사내용의 노래와 행동으로 미국에까지 전파된 젊은이들의 문화였다.

펑크 록은 50년대 로큰롤과 비교해 볼 때 원시적인 절규와 같고, 두 세계의 코드만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룹도 있어 소음과도 같은 음악이며 격렬함을 수반한 짧고도 순식간에 퍼진 맹렬한 것이었다<sup>11)</sup>. 펑크 록을 처음부터 주도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록 그룹 섹스 피스톨즈는 한 마디로 외모에서도 펑크의 표준이었다.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의상 부티크 'Sex'의 프로모션 컨셉으로 고안되었을 만큼 그들의 특이한 머리 모양, 패션, 악세사리 등으로 점차 새로

운 유행을 만들어 내었다. 섹스 피스톨즈가 기성세대의 가치와 질서에 도전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진 기간은 불과 1년이었지만 그들의 짧은 반란은 영국과 미국, 유럽까지 확산되었다.

### III. 록 뮤직 스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성

#### 1.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징

##### 1) 로큰롤 스타의 헤어스타일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릴 적부터 주변에 흑인문화와 접하여 살았기에 그들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여 당시 흑인가수들이 입었던 광택있고 화려한 컬러의 의상을 선호하였다. 윈색의 재킷과 넥타이에서 양말까지 강렬한 색의 조화를 사용하여 흑인패션의 영향을 받은 이국적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그림 1>에서 보듯이 흑발로 염색하고 포마드를 듬뿍 발라 광택이 나도록 해서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때 당시 남성들은 D.A스타일이라는 'duck ass'의 약자로 머리의 측면에서부터 뒷부분까지 날개로 감싸는 것과 같은 짧은 형태였다. 가장 큰 특징은 앞머리를 뒤로 웨이브 지도록 넘겼다는 점이다. 대부분 크게 웨이브를 주어 앞부분을 강조하

였고 또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손질했다. 그리고 컷볼 부분까지 내려오는 구레나룻은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야성미와 남성미가 강해 소녀 팬들이 열광하도록 만들었다.

흑인 로큰롤 가수인 리틀 리처드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의상으로 50년대 엘비스 못지 않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아무리 과장된 장식을 했더라도 전통적인 남성스타일인 덴디(dandy)의 느낌을 추구하였기에 크게 과격적이지는 못했다. 그의 '콘크(conk)'라는 헤어스타일은 독창적인 그만의 스타일이 되었다<그림 2>. 페니 스톨링에 의하면 콘크 머리는 옆부분이 마르셀 웨이브(Marcel wave)이며 앞부분이 폼파두어(pompadour)로 우뚝 솟은 폭포같은 웨이브와 걸로 된 헤어스타일이라고 묘사하였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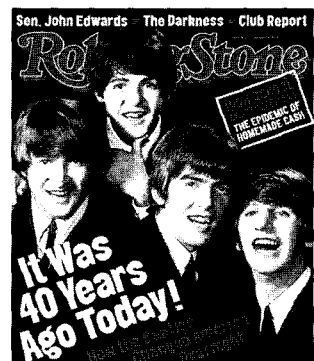
비틀즈의 탄생은 그들의 음악과 함께 헤어스타일도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그들의 앞머리를 덮는 헤어스타일은 그들만의 트레이드 마크였으며 머리에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완전히 마른 상태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었다<그림 3>. 색상에 있어서도 네 명 모두 흑갈색의 통일감과 이마를 앞머리로 완전히 덮는 스타일의 반복성으로 특징적인 그들만의 비틀 컷을 만들어 내었다. 눈썹 바로 위 부분까지 덮고 긴 뒷머리와 구레나룻으로 약간의 장발스타일이며 전체적으로 풍성함이



<그림 1> 엘비스 프레슬리  
<http://www.rollingstone.com>



<그림 2> 리틀리처드  
<http://shop.tubemusic.com>



<그림 3> 롤링스톤지의 '비틀즈'  
<http://www.rollingstone.com>



<그림 4> 지미 헨드릭스  
<http://www.rollingstone.com>



<그림 5> 짐 모리슨  
 Haircuts



<그림 6> 재니스 조플린  
<http://members.tripod.com>

특징이었다. 비틀즈 커트는 mop top(모프 톱)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대중적이고 강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방되어졌다.

## 2) 사이키델릭 록 스타의 헤어스타일

지미 헨드릭스의 아프로(Afro) 스타일은 <그림 4>와 같이 1960년대 말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이 독특한 아프리카 풍의 머리 모양으로 흑인 특유의 머리질감과 부피감을 가공하지 않고 커다랗게 부풀린 연출로 에스닉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것은 흑인의 바이라테랄(bilateral)이라는 웨이브의 외측 요소의 특징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구조로 항상 곱슬거리는 상태를 유지하여 바깥쪽으로 빗질하여 세우면 크고 둥근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사이키델릭 록 스타들은 L.S.D와 같은 환각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공연을 하거나 작곡을 하여 대부분의 뮤지션들 표정은 황홀경에 도취한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헤어스타일이 길어질수록 무질서와 혼미함의 느낌이 더해진다. 또한 질감도 빗질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거칠고 지저분하게 보이며 색상은 그의 본래 흑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룹 도어즈의 리더 보컬인 <그림 5>의 짐 모리슨은 장발의 굵은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로 도어즈 1집 앨범에서는 목 부분정도 까지 오는 길이에 술을 많이 쳐내어 평범한 장발과 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와 길이에 있어 좀 더 풍성하고 거칠고 굵은 웨이브를 많이 살려 여성미가 느껴지도록 하였다. 특별히 염색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본래의 흑갈색을 유지하였다.

재니스 조플린은 긴 생 머리에 곱슬머리라는 특징

때문에 약간은 헝클어진 듯한 자연스러운 굵은 웨이브의 스타일로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무대에서의 모습은 사이키델릭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적당한 스타일이며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보인다<그림 6>. 색상은 구릿빛이며 때때로 금발로 염색하여 분위기를 달리하여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머리에 술 장식을 하거나 꽃으로 장식하여 히피스타일을 보여주었다.

## 3) 글램 록 스타의 헤어스타일

양성적인 앤드로지너스를 가장 부각시키고 대중화시킨 록 스타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인 데이빗 보위는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이름으로 출현하면서 그의 특이한 광택이 나는 미래적인 의상과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패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 그의 헤어스타일은<그림 7>에서 보듯이 마치 수탉을 연상케 하는 거친 털과 같은 헤어컷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가 끝이 짧고 뽀족하여 남성 크루컷(crew-cut)보다는 조금 길지만 단정치 못하고 들쭉날쭉하며 뒷부분은 어깨까지 오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앞머리는 드라이어로 말발 버섯 모양으로 부풀려 강조했으며 뒷머리는 목덜미를 덮어 남성의 머리와 여성의 머리를 합쳐 놓은 듯 하였다. 색상은 주로 빨강과 주황색으로 염색하여 상당히 화려하게 보였으며, 한가지 성으로 구분하기 힘든 양성성을 나타내어 그 당시 양성적인(androgynous)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4) 펑크 록 스타의 헤어스타일

펑크 그 자체가 허무주의적인 움직임이었기에 해



<그림 7> 지기 스타더스트  
<http://www.velvetplayground.com.ne.kr>



<그림 8> 섹스 피스톨즈 I  
<http://www.sex-pistols.co.uk>



<그림 9> 섹스 피스톨즈 II  
<http://www.sex-pistols.co.uk>

어스타일 또한 록 뮤직 스타들에 의해 보여 지는 허무주의적인 스타일을 받아들였다. 펑크적인 움직임의 핵심요소들을 보여준 사람은 록 밴드 섹스 피스톨즈의 시드 비셔스(Sid Vicious)라고 할 수 있다<그림 8>. 그는 펑크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펑크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를 중심으로 한 록 밴드 섹스 피스톨즈 멤버들의 헤어스타일은 마치 가위로 막 잘라놓은 듯한 모습으로 충격을 가져다주는 듯 하였다.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짧은 머리를 위로 향하도록 뽀족하게 세운 스파이크 스타일의 거친 질감으로 보이도록 하였으며 색상은 흑발에 가까운 색으로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림 9>에서 보면 멤버들의 헤어스타일은 주로 흐트러진 스타일과 스파이크 스타일을 볼 수 있고 앞머리를 강조한 D.A.스타일과 비슷한 형태도 있다. 색상도 머릿결과는 상관없이 반복적인 탈색으로 더욱 거친 느낌의 위협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여 주었고 또한 갈색이나 빨강, 주황 등의 염색을 주로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록큰롤, 사이키델릭 록, 글램 록, 펑크 록의 음악적 특성과 그들의 헤어스타일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2. 헤어스타일의 상징성

### 1) 청춘성

새로운 감성의 젊은 세대들은 로큰롤 스타들과의 나이가 비슷하고 비슷한 배경 출신에 비슷한 관심사로 자신들과 동일시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젊은 층을 사로잡은 로큰롤 뮤직과 함께 주변의 여러 문화를 흡수하면서 젊은

이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로큰롤 스타들의 이미지는 영 패션을 주도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 중에서 헤어스타일은 1950년대 후반 로큰롤 스타들의 남성적 매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십대의 소년들 또한 머리 손질하는데 있어 많은 돈을 소비하여 자신들의 젊음을 과시하였고 또한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포마드를 사용하여 앞머리를 크게 강조하여 넘기는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남성답고 관능적인 매력을 나타내면서 십대들 또한 D.A.헤어스타일에 짧은 구레나룻으로 자신들의 머리를 치장하였다<그림 10>. 이는 당시 로큰롤 뮤직의 특성인 젊음의 발산이라는 청춘성이 내재해 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헤어스타일이 자신들이 십대이지만 경제력을 지닌 하나의 소비주체로서의 성인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면,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유행하였던 비틀즈 헤어스타일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생머리에 이마를 덮고 목덜미까지 오는 남성 보브 스타일로 좀 더 어려 보이도록 하여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젊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록 뮤직 스타 헤어스타일은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려 했으며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여 젊은이다운 청춘성을 상징하였다.

### 2) 저항성

록은 흑인 음악의 블루스를 시작으로 그 저변에는 미국 흑인 노예들의 저항성과 그러한 음악을 즐기는

<표 1> 20세기 록 뮤직 장르의 음악적 특성과 록 스타 헤어스타일

음악장르 특성	로큰롤	사이키델릭 록	글램 록	펑크 록
활동 연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초반	1970년대 중후반
음악적 특성	흑인의 블루스, R&B, 컨트리, 전통적인 팝과 재즈, 가스펠 등 다양한 음악 양식의 혼합체로 단순하고 댄서블한 음악 형식	몽환적 분위기의 단순하고 무의미한 즉흥적인 연주형태와 공격적며 요란한 연주 형태의 음악적 특성을 지님. 히피문화를 대표하여 젊은이들의 사상을 대변하였던 음악 장르	팝적이면서 펑크적인 색갈이 가미된 음악으로 기발한 의상과 함께 연극적인 요소를 지닌 음악 형식	원시적이고 소음과도 같으며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 욕설, 마약이나 섹스에 관한 가사내용으로 폭발적이고 맹렬한 음악적 특징을 지님
대표적인 록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리틀 리차드 비틀즈	지미 헨드릭스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데이빗 보위	섹스 피스톨즈
록 스타의 헤어스타일	 엘비스프레슬리의 D.A스타일	 지미 헨드릭스의 아프로 스타일		
	 리틀 리차드의 콘크 스타일	 짐 모리슨의 헤어스타일		
	 비틀즈의 몫톱 스타일	 제니스 조플린의 헤어스타일	데이빗 보위의 양성적인 헤어스타일	섹스 피스톨즈의 스파이크 스타일

백인 노동자 계급의 주류사회에 대한 반항성이 지배적이었다.

그 당시 히피스타일을 살펴보면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사이키델릭의 영향으로 사이키델릭 프린트의 직물과 꽃무늬 셔츠나 재킷, 스커트를 애용했다. 또한 서로 다른 민족집단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 인도,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다민족적이며 신비로운 색상과 이국적인 소재를 사용

하여 일종의 사회주류로부터 일탈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헤어스타일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틀을 주던 전시대와는 달리 긴 머리를 다듬지 않은 채로 그대로 풀어 헤쳐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내는 것이 특징이었다<그림 12>. 그들의 자연주의적 경향은 특히 록 뮤직 스타들에 의해 이전까지의 인공적이었던 머리형태에서 자연스런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조금 흐트러진 머리도 아름다운





<그림 10> 앞머리를 강조한 D.A스타일 록의 시대



<그림 12> 히피 남성과 여성의 긴 헤어스타일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1> 모즈록의 '비틀즈'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3> 흑인의 아프로 스타일  
<http://www.rollingstone.com>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나 흑인, 제 3세계의 인종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흑인들의 헤어스타일인 아프로 스타일<그림 13>, 인디언 부족들의 브레이드 스타일(땡은 머리)을 모방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은이들만의 도전적인 사고 방식을 표현하였다. 히피스타일의 머리형태는 전시대에 유행했던 짧은 머리에 대한 반발, 특히 남성들의 긴 머리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었는데 이는 록 가수에 대한 모방, 민속 풍의 취미 등을 나타내는 머리형태였으나, 무엇보다도 산업주의 사회와 현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자 한 그들의 희망을 잘 표현한 머리형태였다<sup>13)</sup>. 그러므로 록 스타들의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긴 웨이브와 흐트러진 스타일, 흑인특유의 헤어스타일에서 나온 아프로 스타일, 인디언들의 브레이드 스타일(땡은 머리), 남성들의 장발스타일 등은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을 내포한 헤어스타일이었다.

### 3) 폭발성

록은 결코 가진 자, 배운자의 음악이 아닌 피지배

계급, 소의 계급의 전유물로 천민성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사회적 신분이 낮고 열등한 백인 청년들이 록에 이끌리는 것은 당연했으며 노동자 계급의 대중음악이라는 저의가 포함되어있었다. 록의 폭발성은 70년대 후반 영국을 강타한 펑크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특히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은 상류계층으로 상향 이동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항을 그들은 펑크라는 험오스러운 복장과 머리형태로 표현하였다. 펑크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강조되는 것은 헤어스타일로 <그림 14>와 같이 머리를 불규칙한 길이로 잘라 모근부터 뾰뾰이 고정시키거나 짧은 머리를 지저분하게 뽀뽀도룩한 스파이크 스타일과 <그림 15>의 과감한 모히칸 스타일이 있다. 또한 정수리 부위나 옆부분을 부분적으로 짧게 자르거나 면도를 하여 앞이마부터 뒷 목덜미까지 넓은 부채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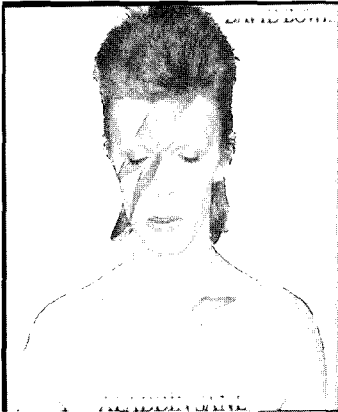
<그림 14> 런던의 펑크스타일, 1979,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그림 15> 모히칸 헤어스타일  
Fashion and Style : The Best from  
20 years of i-D



<그림 16> 모히칸 헤어스타일  
Fashion and Style : The Best from 20  
years of i-D



<그림 17> 데이빗 보위  
<http://www.velvetplayground.com.ne.k>



<그림 18> 데이빗 보위의 'Aladdin sane'  
<http://www.velvetplayground.com.ne.kr>

을 만들거나 양옆을 높이 세운 이러한 헤어스타일들은 모두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원색적인 빨강이나 연두, 파랑 등의 현란한 염색이나 금발로 탈색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보다 자신들의 폭발적인 심리적 표현이나 젊음의 발산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짙었다. 이와 같이 펑크 록의 폭발적인 성향과 함께 펑크 헤어스타일은 자신들이 표현하고자하는 감정과 동일시하여 보여 주었으며 기존체제를 향한 극렬한 분노와 반항의 폭발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 4) 예술성

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영국의 펑크스타일은 왕궁 근위대와도 같이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볼거리가 되었다. 런던의 이러한 펑크 헤어스타일은 전보다도

더 과장되고, 더욱 심한 염색을 선보였는데 이는 모두 미국의 사진작가들이나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였다<sup>14)</sup>. 펑크 록뿐만 아니라 록의 모든 장르는 상업주의적인 팝 음악과 달리 개인의 의식적 창작물로 예술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음악이라는 청각적인 예술과 함께 시각적인 예술까지 보여주려고 했던 록이 글램 록이었다<그림 16-17>.

데이빗 보위와 같은 글램 록 뮤지션들의 헤어스타일은 사이키델릭 록과 같은 히피 스타일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과 흐트러진 스타일보다는 블로우 드라이를 이용한 인위적이고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된 것은 새로운 커트 방법에 있었다. <그림 18>에서 보듯이 머리 정수리 부분은 되도록 짧게 하여 앞부분이

서도록 하였으며 옆머리는 날렵하게 보이도록 짧게 컷트했고 목덜미 부분은 길게 하여 남성미가 있으면서 여성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머리전체를 붉은 색상으로 염색하여 현란함과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록 문화는 저항성과 폭발성이라는 원시적인 성향 속에서도 음악의 핵분열을 일으키며 다양하게 분화되어 록이라는 장르의 시금석을 마련한 비틀즈부터 70년대의 펑크 록 뮤직은 미적 형식을 갖추면서 거리의 소음이 아닌 사회성 외에 예술성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섹스 피스톨즈, 클래쉬 등 펑크밴드들은 이러한 예술성의 치중과 미학적 경향에 반기를 들고 반미학을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반미학이라는 미학을 수립하는 역할을 실천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패션문화를 형성하여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에 중요한 요인이 된 록 뮤직 중에서 로큰롤, 사이키델릭 록, 글램 록, 펑크 록을 중심으로 록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그러한 헤어스타일이 보여주려 하였던 상징성을 고찰해 보았다.

1. 각각의 록 뮤직 스타들에게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로큰롤 록 스타들의 50년대 헤어스타일은 앞머리를 강조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앞머리에 크게 웨이브를 주어 뒤로 넘겨서 앞이마를 드러냈으며, 구레나룻을 길러 남성미를 강조하는 D.A스타일과 60년대에는 mop top이라는 보브 스타일의 장발머리가 유행했는데 앞이마를 드러냈던 50년대와 달리 앞머리를 눈썹정도 위까지 덮었으며,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마른 상태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었다. 사이키델릭 록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은 머리전체에 부피감을 주었으며 염색을 거의 안한 본래의 색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많았다. 흑인의 아프로 스타일과 어깨정도 오는 길이의 굵은 웨이브의 장발 스타일, 긴 생머리에 자연스럽게 형클어진 스타일들이 있었다. 글램 록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은 양성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면의 형태는 남성의 크루컷보다는 좀 긴 형태이며 뒷길이는 목덜미를 덮은 장발 스타일로 블로우 드라이를 이용하여 인위적이고 깔끔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색상은 주황색과 붉은 색으로 주로 염색했으며 남성의 얼굴에 메이크업

까지 하여 더욱 양성애적인 모습을 강조시켜 주었다. 펑크 록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은 충격적이고 의도적으로 추하게 표현하여 허무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하였다. 가위를 가지고 불규칙적으로 속아낸 것 같은 짧은 형태에 거칠고 지저분한 스타일에 머리가 위로 바짝 서도록 고정시켰으며, 탈색을 하거나 원색적인 색으로 염색을 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보이게 했다.

2. 록 뮤직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상징성은 청춘성, 저항성, 폭발성, 예술성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제한을 받아왔던 패션에 대한 욕구를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젊은이들만의 청춘성을 표출하였다. 기성질서와 개념을 타파하고자 하는 히피들이 등장해 갖가지 문화운동을 주도하면서 사이키델릭 록 뮤직은 그들과 함께 더욱 저항성이라는 이미지로 정착하게 되었다. 남성들의 긴 머리와 다듬지 않고 흐트러진 채로 풀어헤친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현 체제에 대한 반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과 저항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소외계급과 제 3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헤어스타일에도 흑인들의 아프로 스타일과 인디언들의 브레이드 스타일(뿔머리)을 보여주었다. 히피문화와 함께 했던 사이키델릭 록 뮤직 스타 헤어스타일에서는 보수적인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인종차별이 아닌 소외계급을 인정함으로 젊은이들만의 개방적 사고방식의 청춘성과 동시에 도전적인 저항성을 볼 수 있었다. 노동자 계급의 대중음악인 펑크 록은 시대를 직시하며 소외계급을 대변하는 공격적인 저항 이데올로기의 정신이 절정을 이룬 폭발성을 지녔다. 그들의 헤어스타일에도 스파이크 스타일, 모히칸 스타일 등으로 기존 관념에 반항하는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나타냈으며 형태적인 면에서 폭발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록의 정신에는 반문화적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는 음악장르로서 개인의 의식적 창작물이라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예술성은 글램 록의 헤어스타일의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시각적인 면을 강조하여 화려하게 치장하고 미래적이고 새로운 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외모와 태도를 통해 직접 보여주려 했다. 그들의 헤어스타일은 화려하고 현란한 색상으로 염색하고 양성적인 스타일의 새로운 컷트를 보여주어 또 하나의 예술성을 지닌 스타일이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세기 록 뮤직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은 록 뮤직의 청춘성, 저항성, 폭발성, 예술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되어졌다. 이러한 20세기 록 뮤직과 젊은이들의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들의 스트리트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각각 장르의 록 뮤직은 새로운 스타일은 보여주었으며 그에 따른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새롭게 형성되었으며 하나의 록으로서 하이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각각의 음악 장르에서 패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가수들만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여 그 외의 다른 가수들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였다. 록 뮤직 스타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기에 남성 위주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하여 여성의 헤어스타일 분석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 또한 사진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사진이 아닌 가수들의 활동시기 때 가장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찾았는데, 특히 50년대 록 스타들의 사진 대부분이 흑백 사진이므로 색과 질감을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술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글램 록 스타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글램 록으로 나타난 현대적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와 록 뮤직과 팝 뮤직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특

성들의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선재(1998). 의상학의 이해. 서울 : 학문사, p.55.
- 2) 장미선(1994).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임선경(1994). 팝 뮤직 가수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업스희(1988). 핑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장미선(1994).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2-23.
- 6) 제니퍼 크레이크 (1993). 패션의 얼굴. 정인희, 함연자, 정수진, 김경원 역. 서울 : 푸른솔, p.86.
- 7) 이선재(1998). '앞의 책', p.170.
- 8) 신현준, 성기완, 송현주, 도현호, 김필호, 이정엽(1996). 엘트 문화와 록 음악 I. 서울 : 한나래, p.143.
- 9) 신현준, 성기완, 송현주, 도현호, 김필호, 이정엽(1996). '앞의 책', p.133.
- 10) <http://www.bluenoise.com/bluezine/>. 2000. 4.
- 11) 나채희(1986). 뉴 웨이브 패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 12) Jones, D. (1990). Haircults. London : Thomas and Hudson, p.37.
- 13) 안현경(1996). 20세기 머리형태에 표현된 반항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 2(1), p.198.
- 14) Jones, D. (1990). '앞의 책', p.78.